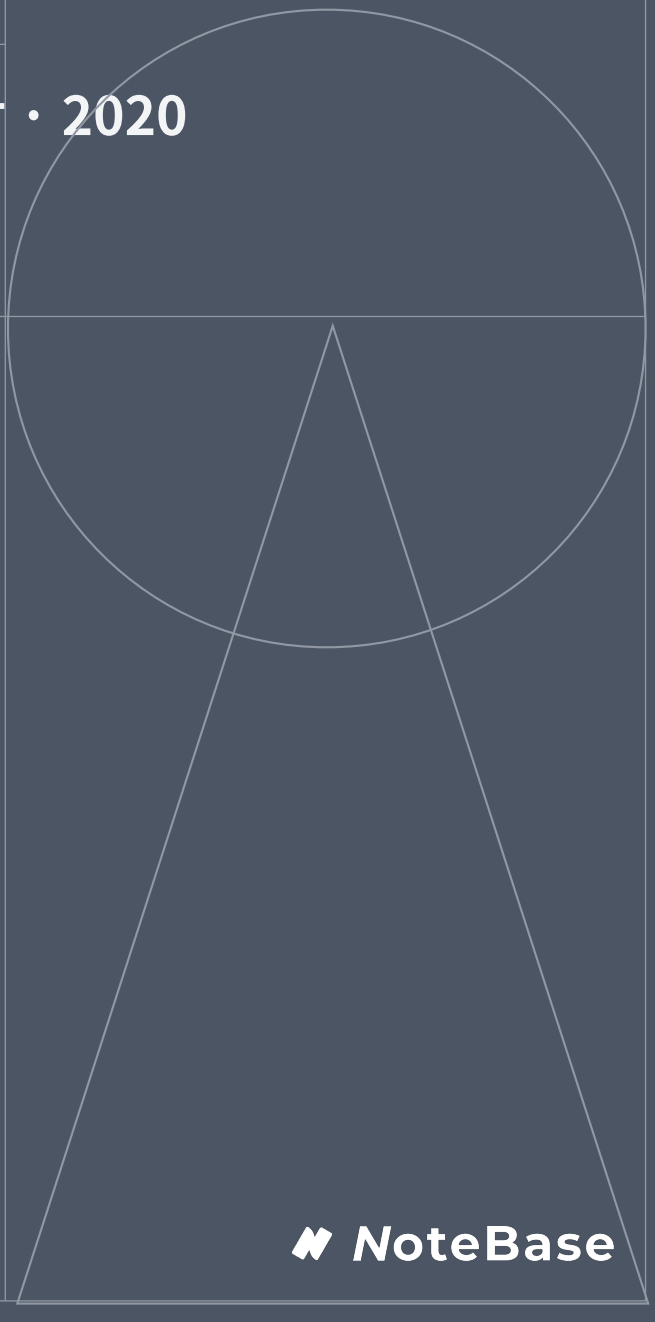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0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0

문 1.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②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④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비유동을 구분하는 일반 원칙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예외적 분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동자산·유동부채는 영업주기, 단기매매목적,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결제 여부로 판단한다.
유동성 순서 표시는 그 방식이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줄 때만 current/non-current 구분을 대신할 수 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관련 자산이나 부채가 유동인지와 무관하게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이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재무상태표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해 표시하더라도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O: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무상태표는 유동자산·비유동자산, 유동부채·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O: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은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비유동으로 보던 금융자산이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실현될 부분은 유동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취지는 타당하다.
④ O: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보고기간말에 없으면 그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이연법인세"를 관련 자산·부채의 성격에 따라 유동으로 따라가게 만든 표현이 함정이다. 이연법인세는 일반 유동·비유동 기준이 아니라 별도로 비유동으로 분류한다는 예외를 알고 있으면 바로 걸러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상태표 분류 문제는 먼저 예외 항목이 있는지 본다. 이연법인세처럼 분류가 고정된 항목을 먼저 제거하고, 나머지는 단기매매목적 여부와 보고기간 후 12개월 기준으로 유동·비유동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연법인세는 항상 비유동, 12개월 이상 연기권이 없으면 유동부채이다.

NoteBase

문 2. 20×1년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의 총액이 다음과 같고 수익과 비용의 합계액이 각각 ₩10,000,000과 ₩8,000,000인 경우, 20×1년의 추가적인 지분출자액은? (단, 배당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기초	기말
자산총액	₩50,000,000	₩30,000,000
부채총액	₩65,000,000	₩20,000,000

① ₩20,000,000

② ₩23,000,000

③ ₩26,000,000

④ ₩29,00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본의 기본식인 자산-부채와 자본변동식으로 추가 지분출자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 자산 50,000,000원, 기초 부채 65,000,000원, 기말 자산 30,000,000원, 기말 부채 20,000,000원, 수익 10,000,000원, 비용 8,0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의 추가적인 지분출자액이다.
주의할 조건: 배당금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본변동은 당기순이익과 추가 지분출자만 반영된다.

사용할 공식

자본은 자산-부채로 계산하고, 배당이 없으면 기말자본은 기초자본+당기순이익+추가 지분출자액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추가 지분출자액=기말자본-기초자본-당기순이익 이다.

계산 과정

1. 기초자본은 $50,000,000 - 65,000,000 = -15,000,000$원이므로 자본잠식 상태이다.
2. 기말자본은 $30,000,000 - 20,000,000 = 10,000,000$원이다.
3. 당기순이익은 $10,000,000 - 8,000,000 = 2,000,000$원이다.
4. 추가 지분출자액은 $10,000,000 - (-15,000,000) - 2,000,000 = 23,00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추가 지분출자액은 20,000,000원이 아니라 23,000,000원이다. 자본 증가액 25,000,000원에서 당기순이익 2,000,000원을 제외해야 하므로 20,000,000원은 맞지 않는다.
2번 O: 기초자본 -15,000,000원, 기말자본 10,000,000원, 당기순이익 2,000,000원을 반영하면 추가 지분출자액은 23,000,000원이다.
3번 X: 추가 지분출자액은 26,000,000원이 아니라 23,000,000원이다. 기초자본의 음수 부호와 당기순이익 차감을 정확히 반영하면 26,000,000원이 나올 수 없다.
4번 X: 추가 지분출자액은 29,000,000원이 아니라 23,000,000원이다.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차이 25,000,000원에 당기순이익 2,000,000원을 더하거나 부호를 잘못 처리하면 과대계산된다.

오답 포인트

기초자본이 -15,000,000원이라는 점을 놓치거나, 수익 10,000,000원과 비용 8,000,000원으로 생긴 당기순이익 2,000,000원을 자본 증가분에서 빼지 않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상태표와 손익 수치가 함께 나오면 먼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자산-부채로 계산한 뒤, 자본 증가분에서 당기순이익과 배당 여부를 차감하여 출자액을 분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추가 지분출자액은 자본증가액 전체가 아니라 자본증가액에서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이다.

NoteBase

문 3. 시산표를 작성하는 중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산표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은?

① ₩50,000의 매입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분개를 누락하였다.

② ₩30,000의 토지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분개는 정확하게 하였지만, 원장으로 전기할 때 토지 계정 대신 건물 계정 차변에 ₩30,000, 미지급금 계정 대변에 ₩30,000으로 전기하였다.

③ [(차)매출채권 ₩35,000/(대)매출 ₩35,000]의 분개를 원장으로 전기할 때 매출채권 계정 차변에 ₩53,000, 매출 계정 대변에 ₩35,000으로 전기하였다.

④ 건물 수선비를 현금 지급하면서 차변에 건물 ₩10,000, 대변에 현금 ₩10,000으로 분개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분개누락, 계정과목 오분류, 전기금액 오류 중에서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실제로 불일치시키는 오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시산표 불일치는 차변과 대변에 반영된 금액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한다.
거래 전체가 누락되거나 양쪽 금액이 같은 채로 다른 계정으로 기록되면 총합은 여전히 일치한다.
한쪽 금액만 잘못 전기되거나 한쪽만 누락되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어긋난다.

핵심 개념

시산표는 각 계정의 차변잔액 합계와 대변잔액 합계를 맞춰 보는 표이다.
따라서 오류가 있어도 차변과 대변이 같은 금액으로 함께 잘못 기록되면 시산표상 합계는 일치하고, 한쪽만 금액이 다르면 불일치가 드러난다.

적용 기준

각 선지에서 오류가 차변과 대변을 같은 금액으로 함께 움직이는지, 아니면 한쪽만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된다.
같은 금액으로 양쪽이 함께 잘못되면 시산표는 맞고, 한쪽 금액만 틀리면 시산표가 틀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매입채무 5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거래를 아예 분개하지 않으면 매입채무 감소와 현금 감소가 둘 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거래 전체 누락은 차변과 대변이 같은 금액으로 함께 빠지는 경우이므로 시산표 합계는 여전히 일치한다. 틀린 표현은 "차대불일치의 원인"이라는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거래 전체 누락은 시산표 불일치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이다.
2번 X: 분개는 정상이었고 원장 전기 때 토지 대신 건물을 차변 30,000원으로 적었더라도 차변 30,000원과 대변 30,000원이 동일하게 전기되었다. 계정과목 오분류는 계정 내용은 왜곡하지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자체는 맞는다. 틀린 표현은 "차대불일치의 원인"이라는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오분류 전기는 시산표 합계는 맞고 계정과목만 잘못된다"이다.
3번 O: 매출채권은 35,000원이어야 하는데 차변에 53,000원으로 전기되었고, 대변 매출은 35,000원으로 정상 전기되었다. 차변이 18,000원 과대계상되어 차변합계가 대변합계보다 18,000원 커지므로 시산표 불일치가 발생한다.
4번 X: 건물 수선비를 자산인 건물로 분개한 것은 비용과 자산의 오분류이지만 차변 10,000원, 대변 10,000원으로 금액은 같다. 따라서 손익과 자산평가는 왜곡되지만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한다. 틀린 표현은 "차대불일치의 원인"이라는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수익·비용의 오분류는 시산표 불일치가 아니라 계정분류 오류"이다.

오답 포인트

모든 회계오류가 시산표 불일치를 만든다고 보면 틀린다. 이 문항의 함정은 분개누락, 계정과목 오분류, 비용의 자산처리처럼 내용상 중대한 오류도 차변과 대변 금액이 함께 움직이면 시산표상으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마다 차변과 대변이 최종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반영되는지부터 본다. 양쪽이 같은 금액으로 함께 빠지거나 함께 잘못 들어가면 시산표는 맞고, 한쪽만 빠지거나 금액이 다르게 전기되면 시산표가 불일치한다.

암기 포인트

시산표 불일치는 한쪽만 빠짐 또는 차대 금액 불일치이고, 오분류와 거래 전체 누락은 양쪽이 같이 움직이면 시산표 합계는 맞는다.

NoteBase

문 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②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최초 인식시점에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③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④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관련된 확률 중 최댓값으로 추정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 요건 및 측정 기준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부채이다.
우발부채는 현재의무인지 불확실하거나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다루는 항목이다.
다수 항목 관련 충당부채는 가능한 결과들의 확률가중치를 반영한 기대값으로 측정하고, 단일 의무는 가장 가능성 높은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X.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아직 과거사건에서 발생한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자체는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아니다.
2번: X. 우발부채도 보고기간마다 자원 유출 가능성을 다시 평가한다.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더 이상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 인식 검토 대상이 된다. 틀린 표현은 '지속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계속 평가한다.
3번: O. 제삼자와 연대의무를 지는 경우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기업 자신의 확정 부담이 아니므로 우발부채로 본다. 기업이 스스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만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된다.
4번: X. 다수의 항목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가능한 결과 중 확률이 가장 큰 하나를 찍는 방식이 아니라 각 결과와 확률을 함께 반영한 기대값으로 추정한다. 틀린 표현은 '확률 중 최댓값으로 추정한다'이다. 올바르게는 확률가중평균으로 측정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충당부채는 '현재의무가 있는가', 우발부채는 '아직 인식 단계까지 확정되지 않았는가'로 가른다. 4번처럼 단일 의무의 최빈값 개념과 다수 항목의 기대값 개념을 뒤섞으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거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생겼는지 본다. 그다음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와 금액 추정이 가능한지를 본다. 마지막으로 측정 대상이 단일 의무인지 다수 항목인지 구분해 단일이면 가장 가능성 높은 금액, 다수이면 기대값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가 아니고, 연대의무에서 타인이 부담할 몫은 우발부채이며, 다수 항목 충당부채는 기대값으로 측정한다.

NoteBase

문 5. 20×1년 초 설립한 (주)한국의 자본거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 말 자본총액은?

○ 20×1년 1월: 보통주 1,000주(주당 액면가 ₩5,000)를 액면발행하였다.
○ 20×1년 3월: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6,000에 매입하였다.
○ 20×1년 4월: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7,000에 매입하였다.
○ 20×1년 5월: 3월에 구입한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8,000에 처분하였다.
○ 20×1년 9월: 3월에 구입한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9,000에 처분하였다.

① ₩3,600,000
② ₩4,100,000
③ ₩5,000,000
④ ₩5,50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자본총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1월 보통주 발행 1,000주, 주당 액면가 5,000원이다. 3월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다. 4월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하였다. 5월과 9월에는 3월 취득분 100주씩을 각각 8,000원, 9,000원에 처분하였다.
구해야 할 값: 20×1년 말 자본총액이다.
주의할 조건: 자기주식은 자본 차감항목이고, 자기주식 처분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총액을 증가시킨다.

사용할 공식

기말 자본총액 = 최초 납입자본 - 기말 보유 자기주식 원가 + 자기주식 처분차익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보통주 발행으로 자본금 5,000,000원이 형성되고,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을 차감한다. 다만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가보다 높은 금액에 처분하면 그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누적되어 자본총액을 다시 늘린다.

NoteBase

계산 과정

1. 1월 보통주 발행으로 자본금은 1,000주 × 5,000원 = 5,000,000원이다.
2. 3월 취득 자기주식 200주의 원가는 1,200,000원이고, 4월 취득 자기주식 200주의 원가는 1,400,000원이다.
3. 5월 처분분은 3월 취득분 100주이므로 원가는 600,000원, 처분금액은 800,000원, 처분차익은 200,000원이다.
4. 9월 처분분도 3월 취득분 100주이므로 원가는 600,000원, 처분금액은 900,000원, 처분차익은 300,000원이다.
5. 기말에 남아 있는 자기주식은 4월 취득분 200주뿐이므로 차감할 금액은 1,400,000원이다.
6. 따라서 기말 자본총액은 5,000,000원 - 1,400,000원 + 500,000원 = 4,10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3,600,000원은 5,000,000원에서 기말 자기주식 1,400,000원만 차감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자기주식처분차익 500,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5월과 9월 처분으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차익 500,000원을 자본잉여금에 가산해야 한다.
② O: 기말 자본총액은 5,000,000원 - 1,400,000원 + 500,000원 = 4,100,000원이다. 자기주식은 기말 보유분만 차감하고, 3월 취득분을 원가보다 높게 처분한 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총액에 포함된다.
③ X: 5,000,000원은 최초 보통주 발행액만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연중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의 효과를 모두 무시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자본이 감소하고, 처분차익만큼 일부 회복되어 최종 금액은 4,100,000원이다.
④ X: 5,500,000원은 자기주식 처분차익 500,000원을 더하면서도 기말에 남아 있는 자기주식 1,400,000원 차감을 누락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남아 있는 자기주식을 자본 차감항목으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기말 보유 자기주식 1,400,000원을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자기주식을 자산처럼 처리하거나, 처분차익과 기말 잔존 자기주식 중 하나만 반영하는 데 있다. 자본총액은 기말에 남아 있는 자기주식은 차감하고, 처분으로 실현된 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더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주식 계산형 문제는 발행으로 만든 최초 자본을 먼저 적고, 기말에 남은 자기주식 원가를 차감한 뒤, 처분차익이나 처분차손의 자본 반영까지 마지막에 더하거나 빼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 감소, 자기주식 처분차익은 자본잉여금 증가, 기말 자본총액에서는 남아 있는 자기주식만 차감한다.

NoteBase

문 6. 다음 자료에 따른 건물 관련 손익이 20×2년 (주)대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 20×1년 1월 1일 투자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정액법 상각)을 취득한 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였다.
○ 20×2년 7월 1일 (주)대한은 동 건물을 공장용 건물(잔존가치 ₩0, 내용연수 25년, 정액법 상각)로 대체하여 자가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 일자별 건물 공정가치

20×1년 말	20×2년 7월 1일	20×2년 말
₩1,200	₩1,400	₩1,500

① ₩300 증가
② ₩280 감소
③ ₩180 증가
④ ₩80 감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에서 자가사용 건물 재평가모형으로 대체될 때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공정가치변동손익과 감가상각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1년 말 공정가치 1,200, 20×2년 7월 1일 공정가치 1,400, 20×2년 말 공정가치 1,500이다.
구해야 할 값: 20×2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건물 관련 손익이다.
주의할 조건: 20×2년 7월 1일까지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이므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대체 후에는 자가사용 건물로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므로 감가상각비만 당기손익에 반영되며 연말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다. 내용연수는 2.5년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상반기 공정가치이익은 $1,400 - 1,200 = 200$이다.
하반기 감가상각비는 $1,400 \div 2.5 \times 6/12 = 280$이다.
순손익 효과는 $200 - 280 = -80$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구간은 공정가치 변동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자가사용 건물 재평가모형 구간은 감가상각비만 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2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투자부동산이므로 공정가치 상승분 $1,400 - 1,200 = 20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2. 20×2년 7월 1일 자가사용으로 대체할 때 그 시점 공정가치 1,400이 이후 회계처리의 장부금액이 된다.
3.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비는 $1,400 \div 2.5 \times 6/12 = 280$이다.
4. 20×2년 말 공정가치 1,500과 장부금액의 차이에서 생기는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므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5. 따라서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200 - 280 = -80$으로 80 감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300 증가는 20×2년 말 공정가치 1,500까지의 상승분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연말 공정가치 상승분 100까지 손익에 포함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7월 1일 이후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므로 손익에는 상반기 200만 반영된다.
② X
280 감소는 하반기 감가상각비만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상반기 투자부동산 공정가치이익 200을 누락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200 이익과 280 비용을 함께 반영하여 순액 80 감소가 된다.
③ X
180 증가는 상반기 공정가치이익 200은 반영했지만 하반기 감가상각비를 20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내용연수 2.5년을 잘못 읽어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감가상각비가 280이므로 순손익은 180 증가가 아니라 80 감소이다.
④ O
상반기 공정가치이익 200에서 하반기 감가상각비 280을 차감하면 80 감소이다. 연말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의 평가이익은 손익으로 가지만,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는 점을 섞으면 ①로 흐르기 쉽다. 또한 내용연수 2.5년의 소수점을 놓치면 감가상각비를 20으로 잘못 계산하여 ③으로 오답 처리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체 전후 회계모형을 먼저 구간별로 끊어 본다.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구간은 공정가치 변동을 손익에 반영하고, 자가사용 재평가모형 구간은 감가상각비만 손익에 반영하며 재평가증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증감은 손익, 유형자산 재평가증가는 기타포괄손익, 대체 후 감가상각은 대체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사용 중인 기계장치 A(장부금액 ₩300,000, 공정가치 ₩150,000)를 (주)대한의 사용 중인 기계장치 B(장부금액 ₩350,000, 공정가치 ₩250,000)와 교환하였으며 공정가치 차액에 대하여 현금 ₩100,000을 지급하였다. 해당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 (주)한국과 (주)대한이 각각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실은?

① (주)한국: ₩100,000, (주)대한: ₩100,000

② (주)한국: ₩100,000, (주)대한: ₩150,000

③ (주)한국: ₩150,000, (주)대한: ₩100,000

④ (주)한국: ₩150,000, (주)대한: ₩15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교환에서 처분손익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인식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A의 장부금액 300,000원, 공정가치 150,000원 / B의 장부금액 350,000원, 공정가치 250,000원 / (주)한국이 현금 10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해야 할 값: (주)한국과 (주)대한이 각각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실이다.
주의할 조건: 상업적 실질이 있으므로 교환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처분손익도 넘긴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로 본다.

사용할 공식

유형자산처분손익 = 처분대가의 공정가치 - 처분자산의 장부금액이다.
(주)한국은 A를 내주고 B를 받으면서 현금 100,000원을 추가 지급했으므로 A의 처분대가는 150,000원이다.
(주)대한은 B를 내주고 A와 현금 100,000원을 받았으므로 B의 처분대가는 25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주)한국이 넘긴 A의 처분대가를 구하면 받은 B의 공정가치 250,000원 - 지급현금 100,000원 = 150,000원이다.
2. 따라서 (주)한국의 처분손익은 150,000원 - 300,000원 = -150,000원이므로 처분손실 150,000원이다.
3. (주)대한이 넘긴 B의 처분대가를 구하면 받은 A의 공정가치 150,000원 + 받은현금 100,000원 = 250,000원이다.
4. 따라서 (주)대한의 처분손익은 250,000원 - 350,000원 = -100,000원이므로 처분손실 10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주)한국의 손실을 100,000원으로 본 점이 틀리다. A의 처분손실은 150,000원이며, 100,000원은 공정가치 차이를 맞추기 위해 지급한 현금일 뿐 손실액 자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주)한국 100,000'이고, 올바르게는 '(주)한국 150,000'이다.
(주)대한의 손실 100,000원은 맞지만, 한쪽 금액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② X
(주)한국의 손실을 100,000원으로 본 점이 틀리고, (주)대한의 손실을 150,000원으로 본 점도 틀리다.
(주)대한은 B의 공정가치 250,000원과 장부금액 350,000원의 차이만큼 100,000원 손실을 인식한다. 틀린 표현은 '(주)한국 100,000, (주)대한 150,000'이고, 올바르게는 '(주)한국 150,000, (주)대한 100,000'이다.

③ O
(주)한국은 A의 공정가치 150,000원과 장부금액 300,000원의 차이로 150,000원 손실을 인식한다.
(주)대한은 B의 공정가치 250,000원과 장부금액 350,000원의 차이로 100,000원 손실을 인식한다.
따라서 보기의 조합이 정확하다.

④ X
(주)한국의 손실 150,000원은 맞지만, (주)대한의 손실을 150,000원으로 본 점이 틀리다. (주)대한은 받은 대가가 250,000원이므로 손실은 10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주)대한 150,000'이고, 올바르게는 '(주)대한 100,000'이다.

오답 포인트

지급현금 100,000원을 그대로 손실액에 더하거나 빼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이 현금은 공정가치 차이를 조정하는 항목이므로, 먼저 각 회사가 넘긴 자산의 처분대가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확정한 뒤 장부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화폐성자산 교환에서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먼저 누가 현금을 더 주고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은 자산 공정가치에서 지급현금을 차감하거나 받은현금을 가산해 넘긴 자산의 처분대가를 구한다. 그다음 처분대가와 장부금액을 비교해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공정가치로 본다. 처분손익은 넘긴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이다.

NoteBase

문 8.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② 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③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④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행가치 측정기준인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현재원가의 정의와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역사적 원가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가격에서 출발하는 측정기준이다.
현행가치는 측정일 현재의 조건을 반영하는 측정기준으로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현재원가가 여기에 속한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가격 또는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할 가격이다.
현재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동등한 부채를 부담할 때의 원가로 이해한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기업특유의 현재가치 측정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현행가치는 역사적 원가와 달리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원거래가격에서 부분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측정일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기업의 기대현금흐름을 반영하는 별도의 측정치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동등한 자산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현재원가이다.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여 받을 가격이며, 거래원가는 공정가치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O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을 계속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처분하면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이나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개념체계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 O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에서 직접 관측되는 가격이 아니라 기업이 기대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구하는 측정치이다. 따라서 직접 관측될 수 없고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공정가치와 현재원가는 모두 측정일 현재의 값을 다루므로 쉽게 섞인다. 그러나 공정가치는 시장기준의 매도가격이고, 현재원가는 동등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원가라는 점이 다르다. ②는 현재원가의 정의를 공정가치에 붙여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시장참여자', '매도할 때 받을 가격',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할 가격'이 나오면 공정가치를 먼저 떠올린다. 반대로 '동등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원가'나 '거래원가 포함'이 나오면 현재원가 여부를 본다. '사용과 처분으로 얻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사용가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정가치는 시장가격, 현재원가는 재취득원가,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기업특유 현재가치이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한다. 원재료는 공정시작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단, 공손과 감손은 없다)

구분	수량(개)	가공원가완성도
기초재공품	300	50 %
완성품	1,000	100 %
기말재공품	500	40 %

① ₩800

② ₩950

③ ₩1,050

④ ₩1,15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입선출법에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재공품 300개, 완성품 1,000개, 기말재공품 500개이다.
구해야 할 값: 당기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이다.
주의할 조건: 원재료는 공정 시작 시점에 전량 투입되므로 이 문항에서는 가공원가만 보면 되고,
선입선출법이므로 기초재공품의 전기 기완성분은 제외하고 당기 추가가공분만 반영한다.

사용할 공식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의 당기 추가가공분 +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수량 + 기말재공품의 당기 완성도 반영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실제로 수행한 가공량만 계산하므로 기초재공품은 남은 50%만,
당기에 새로 착수해 완성한 제품은 100%, 기말재공품은 40%만 반영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초재공품의 당기 추가가공분은 300개 × 50% = 150개이다.
2.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수량은 1,000개 - 300개 = 700개이다.
3.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500개 × 40% = 200개이다.
4. 따라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150 + 700 + 200 = 1,050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800개는 정답인 1,050개보다 250개 부족하다. 기초재공품의 당기 추가가공분 150개와 기말재공품의 환산량 200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값이다. 완성품환산량은 800개가 아니라 1,050개이다.
② X: 950개는 정답인 1,050개보다 100개 부족하다.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재공품의 남은 가공분과 기말재공품의 40%를 정확히 더해야 하는데 그 합산이 누락된 값이다. 완성품환산량은 950개가 아니라 1,050개이다.
③ O: 기초재공품 추가가공 150개, 당기 착수완성 700개, 기말재공품 200개를 합하면 1,050개가 된다. 선입선출법의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계산에 맞는 값이다.
④ X: 1,150개는 정답인 1,050개보다 100개 많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기완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데, 이를 중복 반영하면 과대계산된다. 완성품환산량은 1,150개가 아니라 1,050개이다.

오답 포인트

기초재공품 300개를 전부 당기 가공량으로 보거나, 반대로 기초재공품의 남은 50%를 빼먹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의 전기 수행분을 제외하고 당기 추가가공분만 잡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입선출법 계산형은 기초재공품의 남은 작업률, 당기 착수완성 수량,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분리해서 본다. 그 뒤 기초는 남은 부분만, 당기 착수완성은 100%, 기말은 현재 완성도만 반영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선입선출법 가공원가 환산량은 기초 남은 분 + 당기 착수완성 + 기말 진행분이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11시간의 직접노무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제품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25이다. (주)한국의 총제조원가에 대한 원가동인은 직접노무시간이고, 고저점법에 의하여 원가를 추정하고 있다. 제품의 총제조원가와 직접노무시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5월에 30단위의 제품을 단위당 ₩500에 판매한다면 총공헌이익은?

구분	총제조원가	직접노무시간
1월	₩14,000	120시간
2월	₩17,000	100시간
3월	₩20,000	135시간
4월	₩19,000	150시간

① ₩850

② ₩1,050

③ ₩1,250

④ ₩1,45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저점법으로 직접노무시간당 변동제조원가를 구한 뒤, 여기에 변동판매관리비를 더해 총공헌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판매단가: 500원
- 판매수량: 30단위
- 단위당 직접노무시간: 11시간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25원
- 총제조원가 자료: 2월 17,000원(100시간), 4월 19,000원(150시간)

구해야 할 값:
- 5월 총공헌이익

주의할 조건:
- 고저점법은 활동수준이 가장 높은 150시간과 가장 낮은 100시간을 사용한다.
-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만 차감하며 고정제조원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고저점법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9,000 - 17,000) \div (150 - 100) = 40$원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 \times 11 = 440$원이다.
단위당 총변동원가는 $440 + 25 = 465$원이다.
총공헌이익은 $(500 - 465) \times 30$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총제조원가는 직접노무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섞인 혼합원가이므로, 먼저 고저점법으로 시간당 변동원가를 분리한 뒤 공헌이익 계산식에 넣어야 한다.

계산 과정

1. 고저점법으로 시간당 변동제조원가를 구하면 $(19,000 - 17,000) \div (150 - 100) = 40$원이다.
2. 제품 1단위의 변동제조원가는 $40 \times 11 = 440$원이다.
3. 제품 1단위의 총변동원가는 $440 + 25 = 465$원이다.
4. 제품 1단위의 공헌이익은 $500 - 465 = 35$원이다.
5. 총공헌이익은 $35 \times 30 = 1,05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85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총공헌이익이 1,050원이다.
- 850원처럼 더 작은 값은 변동원가 계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차감을 하거나 공헌이익 개념을 잘못 적용한 결과이다.

② O
- 고저점법으로 구한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440원에 변동판매관리비 25원을 더하면 단위당 총변동원가는 465원이다.
- 따라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35원, 총공헌이익은 1,050원이므로 정답이다.

③ X
- 1,25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총공헌이익이 1,050원이다.
- 금액 1,250원은 단위당 변동원가나 공헌이익을 잘못 산정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④ X
- 1,45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총공헌이익이 1,050원이다.
- 금액 1,450원은 고저점법의 변동원가율을 잘못 잡거나 변동판매관리비를 잘못 반영했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총제조원가 자료에서 바로 단위당 원가를 잡거나, 공헌이익 계산에서 고정제조원가를 차감하는 데 있다. 고저점법으로 먼저 시간당 변동원가를 분리하고, 공헌이익에는 변동원가만 반영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혼합원가와 공헌이익이 함께 나오면 활동수준의 최고점과 최저점으로 변동원가율을 먼저 구한 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를 계산하고, 마지막에 변동판매관리비를 더해 공헌이익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저점법으로 변동원가율을 분리하고,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만 차감한다.

NoteBase

문 1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②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의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③ 압수품 및 몰수품이 비화폐성 자산인 경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며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④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 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공시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산자산의 공시, 현금흐름변동위험 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처리, 압수품·몰수품의 평가, 우발자산의 인식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유산자산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역사적·자연적·문화적·교육적·예술적 가치 자산이다.
우발자산 = 과거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이다.

핵심 구분

유산자산은 재정상태표 자산으로 인식하는 항목이 아니라 공시로 보완하는 항목이다.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일반적인 파생상품처럼
재정운영순원가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비화폐성 압수품·몰수품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한다.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도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공시만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공시하는 대상이므로 옳다. 보존가치는 크지만 일반적인 재정상태표 자산처럼 인식하는 항목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② X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파생상품 계약의 평가손익은 예외적으로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틀린 표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올바른 표현: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③ X
압수품 및 몰수품이 비화폐성 자산이면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한다. 시장가격으로만 평가하고 감정가액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며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한다"

④ X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도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공시 대상일 뿐이다.
틀린 표현: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공시한다"
올바른 표현: "주석 등 공시로만 표시하고 재정상태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②는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일반 원칙과 현금흐름위험 회피의 예외를 바꿔 놓은 선지이다. ③은 비화폐성 자산에도 화폐성 자산의 시장가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들고, ④는 우발자산의 공시와 자산 인식을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회계기준 문항은 먼저 자산을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는 항목인지, 공시만 하는 항목인지부터 가른다. 그다음 파생상품은 일반 처리와 위험회피 예외를 나누고, 압수품·몰수품은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에 따라 평가기준을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산자산은 인식보다 공시,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순자산조정, 비화폐성 몰수품은 감정가액·공정가액, 우발자산은 자산 인식 없이 공시이다.

NoteBase

문 12.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②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③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④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명백한 예측치 또는 예상치 형태를 갖추어야만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목적적합성의 판단 기준인 예측가치와 확인가치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목적적합성은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성질이다.
예측가치는 정보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투입될 수 있는 성질이며, 그 정보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확인가치는 정보가 과거의 평가나 예측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성질이다.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은 정보가 두 가치를 함께 가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목적적합성이 있다.
② O.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피드백 기능은 확인가치의 정의에 해당한다.
③ O. 미래 예측에 쓰인 정보가 나중에 그 예측을 검증하는 데도 쓰일 수 있으므로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그 자체가 명백한 예측치 또는 예상치 형태를 갖추어야만 한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과거 실적이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도 미래 결과 예측에 활용될 수 있으면 예측가치를 가진다.

오답 포인트

예측가치를 '미래예측 숫자 자체'로 좁게 이해하면 ④를 맞는 설명처럼 보기 쉽다. 목적적합성은 정보의 형식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적적합성 문제에서는 먼저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드는 정보인지를 본다. 그다음 미래 예측에 쓰이면 예측가치, 과거 판단을 검증하거나 수정하게 하면 확인가치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예측가치는 미래에 쓰이는 가치이고, 확인가치는 과거 판단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치이며, 둘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만기 3년인 사채를 할인발행하였다. 만기까지 상각되는 연도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 12. 31.	20×2. 12. 31.	20×3. 12. 31.
₩ 15,025	₩ 16,528	₩ 18,195

① 20×2년 12월 31일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96,528이다.

② 20×1년 1월 1일 사채의 발행금액은 ₩950,252이다.

③ 이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유효이자율보다 낮다.

④ 이 사채의 발행 기간에 매년 인식하는 이자비용은 동일한 금액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할인발행사채의 발행가액, 연도별 이자비용,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관계를 연결해 옳지 않은 선지를 찾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액면금액 1,000,000원, 표시이자율 연 8%, 매년 현금이자 80,000원, 만기 3년이다.
연도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20x1년 15,025원, 20x2년 16,528원, 20x3년 18,195원이다.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맞는 선지 3개와 틀린 선지 1개를 구분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에서 총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해 구한다.
이자비용은 현금지급이자와 당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합으로 구한다.
발행가액 = 액면금액 - 총할인발행차금
이자비용 = 현금지급이자 + 할인발행차금상각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할인발행사채에서 매년 지급하는 현금이자는 표시이자율로 고정되지만, 실제 이자비용은 할인액 상각분만큼 더 크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총 사채할인발행차금은 15,025원 + 16,528원 + 18,195원 = 49,748원이다.
2. 발행가액은 1,000,000원 - 49,748원 = 950,252원이다.
3. 매년 현금지급이자는 1,000,000원 × 8% = 80,000원이다.
4. 연도별 이자비용은 20x1년 80,000원 + 15,025원 = 95,025원, 20x2년 80,000원 + 16,528원 = 96,528원, 20x3년 80,000원 + 18,195원 = 98,195원이다.
5. 할인발행이므로 유효이자율은 표시이자율보다 높고, 실제로 기초 장부금액 대비 이자비용은 약 10% 수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20x2년 이자비용은 현금지급이자 80,000원과 그해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6,528원의 합이므로 96,528원이다.

② O
사채의 발행금액은 액면금액 1,000,000원에서 만기까지 상각될 총 할인액 49,748원을 뺀 950,252원이다.

③ O
할인발행은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투자자가 요구한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다. 이 문항에서도 표시이자율은 8%이고 실제 이자비용률은 약 10%이므로 선지 내용이 맞다.

④ X
틀린 표현은 '매년 인식하는 이자비용은 동일한 금액이다'이다.
올바르게는 할인발행사채의 이자비용은 장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달라지며, 이 문항에서는 95,025원, 96,528원, 98,195원으로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현금이자 80,000원이 매년 같다는 사실과 이자비용이 같다는 사실을 혼동하게 만든 선지이다.
할인발행사채에서는 현금이자는 같아도 할인상각액이 해마다 달라지면 이자비용도 함께 달라진다. 이 문제는 상각액 자체가 15,025원, 16,528원, 18,195원으로 이미 다르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자비용이 동일할 수 없다는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할인발행사채 문항은 먼저 발문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한 뒤, 현금이자와 할인상각액을 분리해 본다. 그다음 이자비용은 현금이자에 상각액을 더해 연도별로 계산하고, 할인발행이면 표시이자율보다 유효이자율이 높다고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할인발행사채는 발행가액 < 액면금액,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 이자비용 = 현금이자 + 할인상각액,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은 만기까지 증가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의 기말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법과 총평균법 적용
기말 재고자산 장부상 취득단가 ₩85/개
기말 재고자산 현행대체원가 ₩74/개
기말 재고자산 순실현가치 ₩83/개
기말 재고자산(장부수량) 480개
기말 재고자산(실사수량) 476개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0

① ₩0
② ₩340
③ ₩952
④ ₩5,236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말재고를 실사수량으로 확정한 뒤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를 비교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기말잔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법과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 기말 재고자산 장부상 취득단가는 85원/개이다.
- 기말 재고자산 순실현가치는 83원/개이다.
- 기말 재고자산 현행대체원가는 74원/개이다.
- 기말 장부수량은 480개, 실사수량은 476개이다.
-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0원이다.

사용할 공식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기말잔액은 (취득원가 - 순실현가치) × 기말 실제수량의 양수 부분으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단위당 평가손실은 취득원가 85원과 순실현가치 83원의 차이로 잡기 때문이다. 현행대체원가 74원은 이 문제의 평가충당금 계산기준이 아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재고를 실사수량으로 확정하므로 평가 대상 수량은 476개이다.
2. 단위당 평가손실은 $85 - 83 = 2$원이다.
3. 기말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2 \times 476 = 952$원이다.
4.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0원이므로 기말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잔액도 952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0원은 평가손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값이다. 취득원가 85원이 순실현가치 83원보다 크므로 평가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평가충당금이 없다'는 판단이고, 올바르게는 '476개에 대해 단위당 2원씩 총 952원의 평가충당금을 설정한다'이다.
② X: 340원은 장부수량 480개와 실사수량 476개의 차이 4개에 취득단가 85원을 곱한 값이다. 이는 재고감모손실 또는 수량차이 관련 금액이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수량차이 금액이 평가충당금이다'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평가충당금은 실제 남아 있는 476개의 가치하락분만 반영한다'이다.
③ O: 실제 기말재고는 476개이고 단위당 가치하락은 2원이므로 $476 \times 2 = 952$원이다.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952원이다.
④ X: 5,236원은 취득원가 85원과 현행대체원가 74원의 차이 11원에 실사수량 476개를 곱한 값이다. 이 문제는 순실현가치 83원과 비교하여 평가손실을 구해야 하므로 현행대체원가를 바로 사용하면 안 된다. 틀린 표현은 '현행대체원가 기준으로 충당금을 계산한다'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순실현가치 기준으로 단위당 2원만 평가감액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수량차이에서 생기는 감모손실과 가치하락에서 생기는 평가충당금을 섞으면 ②에 끌리기 쉽다. 또한 현행대체원가가 함께 제시되면 이를 바로 비교기준으로 오해하여 ④를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실제 남은 수량'과 '순실현가치'를 함께 잡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평가 계산형은 먼저 실사수량으로 기말수량을 확정하고, 다음에 취득원가와 비교해야 할 평가기준이 순실현가치인지 다른 금액인지를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단위당 평가차액에 실제수량을 곱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실제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순실현가치의 양수분'으로 잡는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20×1년 (주)한국의 매출원가는?

◯ 기초 재고자산 ₩200,000
◯ 당기 매입액 ₩1,000,000
◯ 기말 재고자산 ₩100,000 (창고보관분 실사 금액)
◯ 미착상품 ₩60,000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
◯ 적송품 ₩200,000 (이 중 12월 31일 현재 80% 판매 완료)
◯ 시송품 ₩60,000 (이 중 12월 31일 현재 고객이 매입 의사표시를 한 금액 ₩20,000)

① ₩780,000
② ₩820,000
③ ₩920,000
④ ₩1,02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고의 소유권 귀속시점과 판매 확정 여부를 반영하여 기말재고를 조정한 뒤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 재고자산 200,000원, 당기 매입액 1,000,000원, 창고보관분 기말 재고자산 1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 매출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미착상품은 12월 31일 현재 아직 매수인의 재고가 아니고, 적송품은 미판매분만 재고이며, 시송품은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부분만 재고이다.

사용할 공식

$COGS = BI + P - EI$
여기서 COGS는 매출원가, BI는 기초재고, P는 당기매입액, EI는 기말재고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의 핵심이 연말 현재 회사 소유 재고를 정확히 확정하여 기말재고를 조정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창고보관분 기말재고는 100,000원이다.
2. 미착상품 60,000원은 도착지 인도조건이므로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이면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아 기말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적송품 200,000원은 위탁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므로 판매되지 않은 20%인 40,000원만 기말재고에 포함된다.
4. 시송품 60,000원은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판매자 재고이므로 미승인분 40,000원만 기말재고에 포함된다.
5. 따라서 기말재고는 100,000 + 40,000 + 40,000 = 180,000원이다.
6. 매출원가는 200,000 + 1,000,000 - 180,000 = 1,02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780,000원은 미착상품, 적송품, 시송품을 전부 기말재고로 더한 경우에 가까운 오답이다. 도착지 인도조건 미착상품은 제외되고, 적송품과 시송품도 전액이 아니라 각각 미판매분 40,000원과 미승인분 40,000원만 포함된다. 매출원가는 1,02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820,000원은 연말 소유 재고의 범위를 넓게 잡아 기말재고를 과대계상한 오답이다. 이 문제에서 확정되는 기말재고는 180,000원이며, 그에 따른 매출원가는 1,020,000원이다. 매출원가 금액을 1,02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920,000원은 특수재고 중 일부만 반영하고 일부를 누락하여 기말재고를 잘못 계산한 오답이다. 적송품의 미판매분 40,000원과 시송품의 미승인분 40,000원을 모두 더해야 하므로 정답 금액은 1,020,000원이다. 매출원가 금액을 1,02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기말재고를 180,000원으로 조정하면 매출원가는 200,000 + 1,000,000 - 180,000 = 1,020,000원이다. 따라서 ④가 옳다.

오답 포인트

도착지 인도조건 미착상품을 재고에 넣을지, 적송품과 시송품을 전액 넣을지에서 많이 흔들린다. 이 문제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판매가 확정되었는지를 동시에 묻기 때문에, 운송 중이라는 사실만 보고 전부 재고로 처리하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말 재고문제는 먼저 창고 실사금액을 기준점으로 잡고, 각 항목마다 12월 31일 현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판매가 확정되었는지를 따진다. 그 다음 포함할 금액만 기말재고에 더한 뒤 기초재고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 순서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도착지 인도조건 미착상품은 미포함, 적송품은 미판매분만 포함, 시송품은 미승인분만 포함이 연말 재고판단의 핵심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표에 표시될 일반순자산은?

자산총계 ₩2,000,000
부채총계 ₩1,000,000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투자액 ₩900,000
무형자산투자액 ₩200,000
일반유형자산 투자재원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 ₩450,000
적립성기금의 원금 ₩150,000

① ₩200,000
② ₩350,000
③ ₩400,000
④ ₩65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순자산을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으로 구분하여 일반순자산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자산총계: 2,000,000원
- 부채총계: 1,000,000원
-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투자액: 900,000원
- 무형자산투자액: 200,000원
- 일반유형자산 투자재원 차입금: 450,000원
- 적립성기금의 원금: 150,000원

사용할 공식

일반순자산은 총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일반순자산 = 총순자산 - 고정순자산 - 특정순자산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일반순자산이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순자산이므로, 이미 일반유형자산 등에 투자된 부분과 적립성기금으로 묶여 있는 부분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총순자산을 계산한다.
총순자산 = 2,000,000 - 1,000,000 = 1,000,000
2. 고정순자산을 계산한다.
고정순자산 = (900,000 + 200,000) - 450,000 = 650,000
3. 특정순자산은 적립성기금의 원금 150,000원이다.
4. 일반순자산을 계산한다.
일반순자산 = 1,000,000 - 650,000 - 150,000 = 200,000

선지별 해설

① O
- 일반순자산은 총순자산 1,000,000원에서 고정순자산 650,000원과 특정순자산 150,000원을 차감한 200,000원이다.

② X
- 350,000원은 총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만 차감하고 적립성기금 원금 150,000원을 특정순자산으로 빼지 않은 값이다.
- 틀린 표현은 일반순자산이 350,000원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일반순자산은 200,000원이다.

③ X
- 400,000원은 고정순자산 계산에서 무형자산투자액 200,000원을 누락하여 900,000원 - 450,000원만 반영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 틀린 표현은 일반순자산이 400,000원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무형자산투자액도 고정순자산에 포함하므로 일반순자산은 200,000원이다.

④ X
- 650,000원은 일반순자산이 아니라 고정순자산 금액이다.
- 틀린 표현은 고정순자산 650,000원을 일반순자산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일반순자산은 총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모두 뺀 2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일반순자산을 총순자산에서 한 번만 차감하여 계산하거나, 무형자산투자액과 적립성기금 원금을 빠뜨리면 350,000원이나 400,000원 같은 오답이 나온다. 650,000원은 일반순자산이 아니라 고정순자산이라는 구분도 자주 혼동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산과 부채로 총순자산을 구하고, 다음으로 투자된 비유동자산에서 관련 차입금을 차감하여 고정순자산을 계산한 뒤, 적립성기금 원금 같은 특정순자산을 한 번 더 차감하면 일반순자산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일반순자산은 총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뺀 남는 순자산이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 ₩100,000이고, 감가상각비 ₩1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이다.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기말금액에서 기초금액을 차감한 변동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20×1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매출채권 ₩9,000 증가
선급비용 ₩4,000 감소
매입채무 ₩5,000 증가
미지급비용 ₩3,000 감소

① ₩95,000
② ₩99,000
③ ₩101,000
④ ₩10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간접법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구할 때 당기순이익에 비현금항목과 영업관련 자산·부채 변동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당기순이익 100,000원, 감가상각비 1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원이다.
영업관련 자산·부채 변동은 매출채권 9,000원 증가, 선급비용 4,000원 감소, 매입채무 5,000원 증가, 미지급비용 3,000원 감소이다.
구해야 할 값은 20x1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이다.

사용할 공식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에 비현금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손익을 제거한 뒤, 영업관련 자산 증가분은 차감하고 자산 감소분은 가산하며, 영업관련 부채 증가분은 가산하고 부채 감소분은 차감하여 구한다.
이 문제는 간접법 현금흐름표 조정 문제이므로 감가상각비는 가산,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차감, 운전자본 변동은 자산·부채의 증감 방향에 따라 부호를 정해 조정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면 100,000원이다.
감가상각비 10,000원을 가산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원을 차감하면 102,000원이다.
운전자본 조정은 매출채권 증가 9,000원 차감, 선급비용 감소 4,000원 가산, 매입채무 증가 5,000원 가산, 미지급비용 감소 3,000원 차감이다.
따라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00,000 + 10,000 - 8,000 - 9,000 + 4,000 + 5,000 - 3,000 = 99,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95,000원은 선급비용 4,000원 감소를 가산하지 않고 오히려 차감한 경우의 오답이다. 선급비용 감소는 자산 감소이므로 현금유출이 덜 발생한 효과로 보아 가산되어야 한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95,000원이 아니라 99,000원이다.

② O
99,000원은 감가상각비 가산, 유형자산처분이익 차감, 매출채권 증가 차감, 선급비용 감소 가산, 매입채무 증가 가산, 미지급비용 감소 차감을 모두 반영한 정확한 금액이다.

③ X
101,000원은 영업관련 자산·부채 변동의 순효과를 잘못 계산하여 2,000원 과대계상한 오답이다. 실제 운전자본 조정 순액은 -3,000원인데 이를 -1,000원처럼 계산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01,000원이 아니라 99,000원이다.

④ X
105,000원은 미지급비용 3,000원 감소를 차감하지 않고 가산한 경우의 오답이다. 부채 감소는 현금이 더 지급된 것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05,000원이 아니라 99,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간접법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 부호가 서로 반대로 작동한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이다. 특히 선급비용 감소를 차감하거나 미지급비용 감소를 가산하면 정답에서 바로 벗어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간접법 문제는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한 뒤 비현금항목 가산, 영업외손익 제거, 자산 증감 부호 판단, 부채 증감 부호 판단의 순서로 끊어서 계산하면 된다. 자산은 증가 차감·감소 가산, 부채는 증가 가산·감소 차감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간접법 운전자본 조정은 자산은 반대방향, 부채는 같은방향으로 현금흐름에 반영된다.

NoteBase

문 1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년도 매출총이익은?

구분	20×1년 초	20×1년 기중	20×1년 말
직접재료	₩20		₩15
재공품	₩30		₩10
제품	₩20		₩10
직접재료 매입액		₩350	
직접노무원가		₩250	
간접노무원가		₩80	
공장 임차료		₩10	
영업장 화재보험료		₩5	
공장 수도광열비		₩15	
판매원 상여금		₩40	
매출액		₩1,400	

① ₩660

② ₩665

③ ₩730

④ ₩74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재료사용액, 당기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를 순서대로 계산한 뒤 매출총이익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 직접재료 20, 기말 직접재료 15, 기초 재공품 30, 기말 재공품 10, 기초 제품 20, 기말 제품 10, 직접재료 매입액 350, 직접노무원가 250, 간접노무원가 80, 공장 임차료 10, 공장 수도광열비 15, 매출액 1,400이다.
구해야 할 값: 20×1년도의 매출총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영업장 화재보험료 5와 판매원 상여금 40은 제조원가가 아니라 판매비와관리비이므로 매출원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직접재료사용액은 기초재고를 더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해 구한다. 매출총이익은 $GP = Sales - COGS$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재료재고, 재공품, 제품 재고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므로 직접재료사용액, 당기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를 단계적으로 연결해야 최종 매출총이익이 나온다.

계산 과정

1. 직접재료사용액은 20 + 350 - 15 = 355이다.
2. 제조간접원가는 간접노무원가 80 + 공장 임차료 10 + 공장 수도광열비 15 = 105이다.
3. 총제조원가는 355 + 250 + 105 = 710이다.
4. 당기제품제조원가는 기초 재공품 30 + 총제조원가 710 - 기말 재공품 10 = 730이다.
5.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20 + 당기제품제조원가 730 - 기말 제품 10 = 740이다.
6. 매출총이익은 매출액 1,400 - 매출원가 740 = 660이다.

선지 판단

1번 O: 계산 결과 매출총이익은 660이므로 정답이다.
2번 X: 665는 직접재료 매입액 350을 직접재료사용액으로 잘못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재료 매입액만으로 제조원가를 계산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기초 직접재료 20을 더하고 기말 직접재료 15를 차감해 직접재료사용액 355를 먼저 구해야 한다.
3번 X: 730은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당기제품제조원가이다. 틀린 표현은 제조완성원가를 매출총이익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730에서 다시 기초 제품을 더하고 기말 제품을 차감해 매출원가 740을 구한 뒤, 매출액 1,400에서 차감해야 매출총이익 660이 된다.
4번 X: 740은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매출원가이다. 틀린 표현은 매출원가 자체를 이익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매출총이익을 구할 때 매출액 1,400에서 매출원가 740을 차감해 660으로 계산한다.

오답 포인트

직접재료 매입액과 직접재료사용액을 혼동하거나,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매출원가를 같은 단계의 금액으로 착각하면 오답이 된다. 또한 영업장 화재보험료처럼 제조와 무관한 판매비와관리비를 제조원가에 넣어도 계산이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가 세 단계로 주어지는 제조업 문제는 직접재료재고 조정으로 직접재료사용액을 구하고, 재공품 조정으로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구한 뒤, 제품 재고 조정으로 매출원가를 확정하고 마지막에 매출액과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료는 사용액으로, 재공품은 제조원가로, 제품은 매출원가로 넘어간 뒤에야 매출총이익이 계산된다.

NoteBase

문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②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 판매가격은 총 거래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한다.

③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 때 외에는,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④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하므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래가격 배분 원칙과 개별 판매가격 추정 접근법의 차이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거래가격 배분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가장 잘 나타내도록 각 수행의무에 금액을 나누는 것이다.
개별 판매가격 추정 방법 중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은 시장과 고객의 가격 지불 의사를 평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총 거래가격에서 다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 합계를 차감하는 방법은 잔여 접근법이다.
할인은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 배분하고, 계약 개시 후 개별 판매가격 변동만으로는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거래가격 배분의 목적은 각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 해당 재화나 용역 이전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나타내게 하는 데 있다. 선지의 설명은 기준서의 거래가격 배분 목적과 일치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총 거래가격에서 계약상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하는 방법은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이 아니라 잔여 접근법이다.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은 시장을 평가하여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불할 가격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③ O. 할인액 전체가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없으면 할인은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선지는 예외와 원칙을 정확히 설명한다.
④ O.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원칙적으로 계약 개시 시 사용한 배분 기준에 따라 수행의무에 다시 반영한다. 다만 계약 개시 후 개별 판매가격 자체가 변했다고 해서 그 변동을 반영하려고 거래가격을 재배분하지는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2번은 개별 판매가격 추정 방법의 이름을 서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총 거래가격에서 다른 항목 가격을 빼는 방식'은 잔여 접근법인데, 이를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으로 바꾸면 바로 틀린 선지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별 판매가격 추정 문제가 나오면 먼저 추정 방식의 기준을 본다. 시장 정보와 고객의 지불 의사를 평가하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이고, 총액에서 다른 항목의 관측 가능한 가격을 차감하면 잔여 접근법이다. 할인 배분과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의 배분 논리를 유지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시장 보고 추정하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이고, 총액에서 빼면 잔여 접근법이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상품을 외상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거래상대방에게 상환해야 할 같은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 거래가 (주)한국의 자산, 부채, 수익 및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옳게 짝 지은 것은? (단, 판매한 상품의 매출원가는 거래대금의 80%이고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①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수익: 증가, 순이익: 증가

② 자산: 불변, 부채: 감소, 수익: 불변, 순이익: 증가

③ 자산: 증가, 부채: 불변, 수익: 증가, 순이익: 불변

④ 자산: 감소, 부채: 불변, 수익: 증가, 순이익: 불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외상매출과 채무 상계를 함께 보아 자산·부채의 순변화와 순이익 증가액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거래대금을 T라고 두면 매출액은 T이다.
매출원가는 거래대금의 80%이므로 0.8T이다.
외상매출이지만 곧바로 같은 금액의 매입채무와 상계하므로 매출채권은 최종적으로 남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순이익 증감 = 수익 증가 - 비용 증가이다.
자산·부채의 순변화는 거래 전체를 합산해 본다.
이 문제는 외상매출, 원가 인식, 채무 상계가 한 거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분개를 합산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매출 인식으로 수익이 T 증가한다.
2. 계속기록법이므로 재고자산이 0.8T 감소하고 매출원가가 0.8T 증가한다.
3. 외상매출대금은 같은 금액의 채무와 상계되므로 매출채권 증가는 없어지고 부채만 T 감소한다.
4. 따라서 자산은 재고자산 감소분만큼 0.8T 감소하고, 부채는 T 감소하며, 순이익은 T - 0.8T = 0.2T만큼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산은 상계 후 매출채권이 남지 않고 재고자산만 0.8T 감소하므로 감소한다. 부채는 상계로 T 감소한다. 수익은 매출로 T 증가하고 순이익은 매출총이익 0.2T만큼 증가하므로 옳다.

② X
자산이 불변이라는 판단이 틀리다. 외상매출로 매출채권이 생기지만 즉시 채무와 상계되어 사라지고, 재고자산 0.8T 감소만 남으므로 자산은 감소한다. 수익도 불변이 아니라 매출 인식으로 증가한다. 올바르게는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수익 증가, 순이익 증가이다.

③ X
부채가 불변이라는 판단이 틀리다. 같은 금액의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부채는 감소한다. 순이익도 불변이 아니라 매출총이익 0.2T만큼 증가한다. 올바르게는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수익 증가, 순이익 증가이다.

④ X
부채가 불변이라는 판단이 틀리다. 상계로 채무가 없어지므로 부채는 감소한다. 순이익도 불변이 아니라 매출액 T에서 매출원가 0.8T를 차감한 0.2T만큼 증가한다. 올바르게는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수익 증가, 순이익 증가이다.

오답 포인트

외상매출이라는 말만 보고 매출채권 증가를 최종 자산 증가로 남겨 두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같은 금액의 채무를 즉시 상계했다는 조건과 계속기록법에 따른 재고 감소를 함께 보지 않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계가 있는 거래는 먼저 매출·원가 인식 분개를 적고, 그다음 상계 분개를 더해 최종 잔액이 남는 계정만 본다. 마지막에는 순이익을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로 다시 검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외상매출 후 즉시 상계이면 매출채권은 사라지고 재고 감소와 채무 감소만 남으며, 순이익은 매출총이익만큼 증가한다.

NoteBase